

군 단위 지자체 최초 기본소득 지급 장수사과 품질 경쟁력 강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확정... 1인당 80만원 무주사랑상품권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급 방식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연간 80만원이며, 사용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 대상이다.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군민은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된다.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축산·농업·농업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고,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와 기본소득위원회, 무주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 방법, 지급액 등의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어 즉각적인 지역경제 부양책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정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조건 없이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손흥기 기자

군, 기후변화 대응 과원 피해저감 시설지원 사업 추진

장수군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과원 피해저감 시설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사과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내 사과 농가에 저온·서리 피해 예방을 위한 차광시설,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등 이상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장비들은 개화기 저온 피해를 줄이고 과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에 군은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예방 시설 설치 가능한 사과 농가를 우선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사과를 재배 중인 농업인이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과수지도팀 및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기술

보급과(350-2853)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은 해발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기상 변화에 따른 과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잦아진 저온과 극한호우 등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자체 군비사업이다.

대한민국 대표 사과 주산지인 장수군은 다양한 사과 지원사업을 통해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 불안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과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시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사과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장수사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 환경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진안군은 지역농업 현장 최고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2026 진안 환경농업대학' 교육생을 오는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진안 환경농업대학은 2001년부터 25년간 농업인 대학과정으로 운영하여 작년 수료생 25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2,370명의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역 농업의 든든한 인재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진안 환경농업대학은 농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 중심 교육과정으로, 치유농업과 스마트농업 2개 과정을 운영한다.

각 과정별 40명씩 총 80명을 선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총 70시간) 이론교육과 실습, 선진지 견학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치유농업 과정은 AI 활용기술 및 민간자격증 취득을 포함한 실습 중심 과정이며, 스마트농업 과정은 ICT 기반 환경제어, 데이터 활용, 자동화 기술 등 미래형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 과정으로 운영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현장 중심 행정 강화

34개 주요 사업장 현지 점검

진안군은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5일간 대대적인 현지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5일간 진행되며 이경영 부군수가 직접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첫날인 20일에는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으며,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주요 건설사업장과 관광자원 조성지 등 관내 34개소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현장을 찾은 이 부군수는 단순한 공

정을 점검을 넘어 사업의 완성도와 주민 체감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사업 완료 이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은 물론 군민들의 이용률 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 행정을 이어갔다.

한편, 진안군은 이번 현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군정 주요 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작업 재해 예방·안전보건 교육 실시

무주군이 2026년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의식 함양과 재해 예방에 주력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450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총 12회(상반기) 진행되며, 6개 읍면 마을회관과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순회 교육으로 실시된다.

우석대학교 김유성 교수가 강사로 나서 △농작업 중 근골격계 및 심뇌혈관 질환 이해와 관리·예방 △농작업 주요 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 매개 감염병 증상과 예방법 △농작업 안전 보호구 사용 시범 및 실습 △온열질환 종류와 예방법 등을 강의한 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통합돌봄사업 위한 첫 통합지원회의 개최

진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제1차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 추진을 일렷다.

이번 회의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3개 읍·면 관계자와 보건소 방문보건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무주장수지사, 진안군의료원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보건·의료,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통합지원회의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전반을 함께 논의하는 실무협의체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회의에서는 3개 읍·면 5명의 통합돌봄 대상자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승인과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 절차를 체계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승인된 개인별 지원계획과 향후 제공될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고, 신속히 서비스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개시 후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서비스 이용 여부, 지원계획 조정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상반기 전기자동차 72대 보급사업 추진

장수군은 23일부터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군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78대로 상반기에는 72대(승용 44대, 화물 27대, 승합 1대)에 대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승용차 최대 1,210만원, 화물차(소형) 최대 1,750만원, 승합차 최대 1만4,000만원까지이며,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전기택시, 택배용 차량, 소상공인, 농업인, 다자녀가구,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 이하 계층 등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돼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돼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분사·지사·공장 등을 둔 법인 및 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신청 절차는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